

노인의 의미에 대한 주관성 연구

이금재* · 박인숙** · 김분한***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한국은 1960년대 이후 경제성장에 따른 생활 개선, 보건위생의 향상, 의료기술의 발달로 장수시대에 접어들었다. 노인인구는 1960년대 0.9%에서 1999년초 6.7%로 늘어났다. 2000년에는 7.1%(337만명)로 늘어나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될 전망이다(김정석, 1999).

의학의 발달, 경제력 향상 등으로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의 감소와 평균수명의 연장이 곧 노인들의 건강상태, 신념, 건강관리수준, 또는 삶의 질의 향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노년기는 삶의 연속선상의 끝에 위치하는 피할 수 없는 자연적인 정상 발달 과정이지만 이에 따르는 신체적 변화, 경제적 불안정, 사회적 역할 상실, 심리적 부적응에 의하여 노인들은 무력하게 되며, 노인들을 의존적인 위치에 있게 하여, 양가감정을 갖게 한다(윤진, 1985). 또한 노년에는 다른 연령층보다 유병률이 높고 건강문제를 일으키기 쉬운 집단으로 급성질환보다 장기간의 섭생과 요양이 필요하

며, 완치가 어려운 만성질환이 대부분이므로 신체적 심리적 고통이 더욱 심각하다. 복지사회가 되어 노인의 욕구가 충족되어 아무 걱정없이 생활해 나간다고 하더라도 노화현상에서 오는 심리적, 신체적, 정신적 특징 때문에 빈곤, 건강, 고독 등의 노년문제는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노인의 취약성을 최소한으로 감소시키는 문제와 연관지워 노인 개인의 삶에 초점을 두어 존재의 의미를 갖고 성숙한 상태로 살아가야 하는 관점을 생각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실존주의 접근은 노인의 삶의 경험을 통한 성장과 의미 발견 그리고 노년에 내포된 다차원적 측면을 검토하도록 도와주는 대안적 패러다임이다. Farren 등(1991)은 인간은 괴로움에 처하게 되면 자신의 어려운 처지에서 고통의 뜻과 의미를 찾고자 한다고 하였다. 인생에서 의미와 목적을 갖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이며, 인간이 가장 비참할 수도 있는 어떠한 처지에서도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개별적인 의미를 찾으면서 살아간다(Febry, 고병학 역, 1985). 이처럼 의미를 추구한다는 것은 그의 삶에 있어 근본적인 힘이 되며, 현재의 상황의 어려움을 견디어 내면서 희망을 갖고 삶을 영위할 수 있으나 이것을 상실한다는 것

* 경원전문대학교 간호과 조교수

** 충남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한양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은 가장 최악의 절망과 고통을 가져온다(Frankl, 김충선역 1997).

의미는 “느끼고, 정리하고 또는 한사람의 실존으로부터 결합하는 것”으로써 해석되어 질 수 있다 (Reker, et al., 1987).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과정에서 노인의 의미에 대한 잠재적 중요성은 심리적 안녕감과 관련된 긍정적인 정신건강과 관계된다고 하였다(Zika & Chamberlain, 1992). 이는 노인의 삶을 전망할 때 무엇보다도 삶의 의미를 갖는 것이 긴요하고, 삶의 의미에서 행동이 나오고 그 행동이 그 삶의 형태를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삶의 의욕을 크게 상실하여 영적 고통이 심하리라고 생각되고, 만성적이고 치유가 불확실한 질병으로 인해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는 노인들이 노년의 의미를 발견함으로써 현 생활에 적응하여 만족스럽게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간호사의 이해와 지지가 뒷받침되어야겠다.

간호학 분야에서의 노인연구는 1980년대에 시작하여, 1990년대에는 양적, 질적인 향상을 보이고 있다. 이영란 등(1998)은 1990년대 이후의 노인간호연구 분석결과에서 주된 연구개념은 신체건강, 정신건강, 의료관리, 사회적 건강, 삶의 질, 가족간호, 신체활동 등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노인에 대한 많은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진 바 있으나,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필수적 요소이며 노인에 대한 지각과 신념을 나타내는 의미에 대한 탐색적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노인들 자신이 인지하고 있는 노인에 대한 의미의 주관성 유형을 분석함으로써 노인의 의미를 탐색하고 긍정적인 노인의 의미 형성을 위한 제언에 도움이 되고, 더 나아가 노인간호중재 전략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 자신이 인지한 노인에 대한 의미의 주관적 구조를 확인하여, 노인간호를 하기 위한 간호사정 도구개발과 노인의 삶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써 노인이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의미를 갖도록 돕는 간호중재 전략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노인이 자신이 인지하는 노인에 대한 주관적 의미를 탐색한다.
- 2) 노인이 자신이 인지하는 노인에 대한 의미의 주관성 유형을 파악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노인의 개념

노인이란 일반적으로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신체적, 정신적 기능이 쇠퇴되고 사회적 역할이 감소되며 이에 따라 독특한 성격을 갖는 사람으로서 노인이 속한 사회의 인구, 경제 및 사회·문화적 요인의 복합적인 작용에 의해서 그 개념이 구성된다(김수연, 1986).

1951년 국제노인학회에서 발표된 정의를 보면 노인이란 노령화 과정에서 나타난 생리적, 심리적, 정서적, 환경적 및 행동의 변화가 상호작용되는 복합 과정이라고 하였다(임춘식, 1992). 윤진(1985)은 노인이란 단순히 역연령(Chronological age 또는 Calendar age)으로만 규정지을 수는 없는 것이며 생물학적 나이, 심리적 나이, 사회적 나이, 그리고 스스로 느끼는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와 같이 우리는 노인이란 말을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한마디로 정의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며, 학자의 견해와 사회문화적 배경 그리고 나라에 따라서 노인 그 자체를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하면 노인의 연령을 근거하여 그 개념을 파악하는 견해도 있다(김경자, 1993).

정상적인 노화과정을 Birren 과 Renner는 발생학적으로 유기체가 정상적인 환경속에서 살아가면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연히 일어나게 되는 변화를 말한다고 하였으며, 이에 비하여 생물학적 측면에서의 노화는 전 생애 가운데서 퇴화과정이 재생적인 생물학적 과정을 능가하여 결국 유기체의 파괴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말한다(윤진, 1985).

에스코피에 랑비오트 의사는 노화는 에너지 소비

의 어떤 일정한 수준, 심장의 일정 박동수와 관계있는 것이 아니고, 노화는 성장과 성숙의 확정된 프로그램이 한계에 도달하게 될 때 일어나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릴케도 과일이 그 씨를 품고 있듯이 애초부터 우리 내면에 품고 있는 완성의 피할 수 없는 과정으로서 노화를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노화란 고장이 아니라는 말이다.

생물학적 노화가 초역사적인 현실이기는 하나 그 운명은 사회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체험된다. 모든 인간의 상황은 보는 관점에 따라 외면성과 내면성 두 가지 관점에서 고찰될 수 있는데 외면성이란 그 상황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는가 하는 것이고, 내면성이란 주체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여 초월해 나가는가 하는 것이다. 타인의 노년은 삶의 대상이고 자기 자신의 노년은 자기의 상태에 대한 산 경험과 관련이 있는 법이다.

시몬느 드 보봐아르는 그의 저서 '노년'에서 노화의 현실과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노인들에게 지정되는 자리는 어떤 것이며 사람들이 어떤 노인상을 품고 있는가를 여러 다른 시대, 여러 다른 장소를 통해 조사하였다.

공자는 노인을 지혜를 소유한 사람이라고 했으며, 장자는 노년은 지고한 형태의 삶으로 삶이 오래 지속되면 신이 된다고 하였다. 성경의 '신명'에서는 노년은 신의 축복이며, 노인에게는 복종과 존경을 불러일으킨다고 하였다.

고대 그리스어의 노년 : Gera, Geron은 나이가 가져다주는 이점, 고참의 권리, 대표라는 의미가 있다. 플라톤은 노년은 육신의 삶의 즐거움이 약화되어 감에 따라 정신적인 것들에 대한 욕구와 기쁨이 증가하는 때라고 하였으며, '법률'이라는 저서에서 노령으로 쇠약해진 어른보다 더 경건한 마음으로 숭배 받을 자격이 있는 대상은 없다고 하였다. 플라톤의 제자 세팔루스는 노인은 마음속에 한량없는 평화와 해방감이 솟아난다라고 하였다. 이에 반해 이리스토텔레스는 생명의 조건을 내적인 열로 보았는데 노인은 열이 식은 사람이라고 하였으며, 영혼은 순수한 지성이 아니며 이성 50세 까지만 발전한다고 하였다. 히포크라테스는 노년을 겨울에 비교하였고, 13세기에 갈레노스는 노년을 질병과 건강의 중간상태라고

하였으며, 베이컨은 노년을 질병으로 간주했다.

시몬느 드 보봐아르는 노인은 살아온 긴 생을 뒤로 갖고 있으며, 앞으로 살아갈 삶의 희망이 매우 한정된 인간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시몬느 드 보봐아르, 홍상희, 박혜영 역, 1994).

윤진(1985)은 노인은 가정, 사회 및 국가에 기여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이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 발달단계에서 성숙한 일생을 정리하는 유용한 존재라고 하였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일종의 당위성을 지향하는 이론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러한 이론이 노인현실의 실제성 속에서 활성화 될 수 있는가에 있다. 생리적 신체적 기능의 감퇴, 자기 유지 기능과 사회적 기능의 약화 현상은 외적으로는 무력감, 소외, 단절 등의 어두운 징조를 당연히 수반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취약하고 위태로운 사회적 심리적 조건들을 안고 성숙한 일생의 정리 또는 인생통합이라고 하는 이상론이 노인들이 당면한 삶 속에서 과연 실현될 수 있는가에 놓여져 있는 것이다. 즉 존재 완성의 최고봉으로서의 노인의 개념은 하나의 이상일 뿐 실체는 이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어 노년의 삶은 현재에 의한 과거활동의 전면적인 전복의 형태를, 완성될 수 없는 합산의 형태를, 총체의 파괴라는 형태를 띠게 된다는 것이다. 노인에게는 이처럼, 통합, 연속, 완성, 총체, 혹은 절망, 종말, 전복, 총체의 파괴라는 상호모순되는 대립적인 가능성이 내재해 있다. 노인의 의미는 이러한 극단적인 양의성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다(변정화, 1998).

2. 노인의 특성

노년기는 인생의 마지막 단계로써 신체적, 정신적 기능이 뚜렷하게 저하되고, 사회적 역할이 감소되며 이에 따라 독특한 성격 특성을 나타내는 시기이다. 연령이 높을수록 육체의 감각기관, 소화 및 순환기관들의 기능이 점차로 쇠약해지고 이와 더불어 근육이나 골격들이 퇴화되어 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생리적 변화로 말미암아 만성질환들이 하나 둘씩 나타나게 되고 면역성이 약화되어 병에 자주 이환된다. 낙상하는 경우도 많게 되어 여러 가지 골절을 당하게 되고, 그 결과 육체활동의 지장을 초래해

비활동적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신체활동 제한은 더욱 더 건강을 악화시켜 다른 사람으로부터 간호를 필요로 하는 단계에까지 이르게 된다(김경희, 1990).

Erikson은 이 시기의 질병은 체념상태의 무력감을 가져오고 아울러 죽음에 대한 내적인 투쟁의 일환으로써 마지막 단계의 성숙과 지혜에 대한 잠재력을 갖기 위한 투쟁임을 강조하고 있다(고영희, 1990).

정신적인 특성으로 노인은 사회나 가족으로부터 폐물로 인식을 받게 됨으로서 인생의 가치나 존재에 대한 목적을 찾아보기 어렵게 되며, 특히 과학과 산업문명의 발달로 인한 현대화 또는 문명화, 도시화는 많은 노인들이 심리적 또는 정신적 궁핍을 느끼며 살아가게 하고 있다. 따라서 노인들의 정신건강 문제로는 은퇴와 더불어 겪게 되는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위협, 심리적 고독감, 죽음에 대한 두려움, 좌절감 등을 들 수 있다(김경자, 1993).

사회적 특성을 보면 최근 연구의 고령화, 산업화, 도시화의 영향으로 노인의 지위와 위치는 점점 하락되어 가고 있으며, 능동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없게 되고, 노인들이 사회에 유용하고 가치있는 기능을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젊은 연령 집단에 비해 사회에 더욱 더 통합되기가 어렵다.

Ward는 현대 산업사회는 노인의 지위를 전보다 더욱 불리하게 하여 그들을 일찍 사회에서 몰아냄으로써 능력과 생활 의욕이 조기 감퇴되어 쓸모 없는 한계인간으로 몰아가며, 이처럼 '노인을 이미 죽은 자처럼 취급하는 것은 노인으로 하여금 생물학적 죽음(biological death)에 앞서 사회적인 죽음(social death)을 미리 경험하게 하는 것' 이라고 했으며, Dewey는 노인들이 당면하는 거부에 민감하여 분노, 불평, 신경질 등의 반응을 보이게 되는 이유를 "신체적인 쇠퇴와 과거에 지녔던 자신들의 생각들이 더 이상 쓸모 없는 것임을 인정해야 하는데서 오는 심리적인 충격"이 그러한 특성을 만들어 낸다고 하였다(김혜련, 1990).

이와 같은 노인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변화 때문에 노인은 노인 특유의 성격특성이 나타나게 된다.

노인의 성격특성을 살펴보면 Cavan은 건강과 경

계적 불안감, 생활 부적응에서 오는 불안과 초조감, 정신적 흥미의 감퇴에서 오는 내폐성, 육체적인 쾌락 추구, 활동성의 감소, 성적 충동의 감퇴, 새로운 상황에 대한 학습이나 적응의 곤란, 고독감, 질투심, 보수적, 다변, 우둔, 과거에 대한 집착, 회고, 누추하다, 잡부스러기를 수집한다 등을 제시하였다(최순남, 1984). Simmons이 71개 지역사회 노인들의 요구를 관찰 분석한 연구결과에서 안정욕구, 승인욕구, 지식욕구, 애정욕구, 생존욕구 등이 있다고 하였다(김미옥, 1986). 또한 노인은 사회에서 약자의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노년기는 유아기와 마찬가지로 절대 의존기에 속한다. 노인의 의존성은 병리적인 현상이 아니라 생활주기상에 나타나는 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서병숙, 1994).

이와 같이 노인은 육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변화기에 있으면서 특유한 욕구를 가지고 있으나 그 욕구충족의 결여로 경제적 어려움, 건강의 위협, 역할의 상실, 심리적 고독감, 죽음에 대한 두려움 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또는 부정적 태도의 근원은 첫째는 사회구조와 가치관이다. 현대사회는 우수한 특성과 역할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들을 가진 자만을 대우하는 능력위주의 사회이기 때문이다. 둘째는 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하락, 빈곤, 고독, 노쇠, 죽음 등이 두려움의 대상으로 노인에 대해 부정적 고정관념을 갖게 하는 원인이 된다.

노인문제가 확대될수록 또한 부정적 태도가 깊어질수록, 젊게 보이고 젊게 행동하기를 강요받게 되고 그 결과 정상적인 인생의 성숙과 인생주기에 대한 발달 적응을 방해하여 노화에 따른 자연보상의 기회를 누리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김경자, 1993).

Ⅲ.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노인 자신이 인지하고 있는 노인에 관한 의미를 탐색하기 위하여 문헌고찰, 그리고 청소년, 일반인, 노인연구 전문가, 노인들을 직접 면담하여 이들에게서 나타난 노인에 관한 의미를 추출 선정하고 자아 참조적 진술문을 만들어 노인의 의미에 대한 유형별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Q-방법론을

사용하였다.

연구기간은 1998년 12월부터 1999년 8월까지 시행하였다.

1. Q-표본의 표집방법(Q-sampling method)

본 연구에서는 노인들의 치료 및 간호를 담당하는 의사와 간호사, 그 외 노인과 일반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중립적이고 심층적인 면접을 통하여 진술 내용을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문항별로 중복되지 않도록 반복적인 구독과 검토를 통하여 정리하여, Q-표본 선정에 위한 123진술문을 추출하였다. 그 외 노인과 관련된 전문서적이거나 문헌, 시, 소설 등의 문학작품을 통해 추출한 60개의 진술문을 합쳐 총 183개의 Q-모집단을 구성하였다.

Q-표본의 선정은 비구조화된 방법을 통하여 준비된 Q-모집단을 놓고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에서 긍정적인 진술문 19개와 부정적인 진술문 21개의 40개의 진술문을 선택하였다. 그 다음으로 Q-방법론에 관한 이해와 본 연구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는 간호학 교수와 상의한 후 최종적으로 36개의 표본을 선정하였으며 이를 문예 창작과 교수에게 의뢰하여 국어학적인 수정을 거쳐서 Q-표본을 확정하였다.

표본의 분포도는 36개의 진술문을 자신의 주관성에 따라 0을 중심으로 강제정규분포(forced normal distribution)시킬 수 있도록 <표 1>과 같이 작성하였다.

<표 1> 표본의 분포도

-4	-3	-2	-1	0	1	2	3	4
(3장)	(3장)	(4장)	(5장)	(6장)	(5장)	(4장)	(3장)	(3장)

2. P-표본의 표집방법(P-sampling method)

Q 방법론은 개인간의 차이(interindividual difference)보다는 개인내의 중요성의 차이(intraindividual difference in significance)를 다루기 때문에 P-표본(P-sample)의 수에 있어서는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김홍규, 1992).

본 연구에서는 60세 이상 노인 32명을 P-표본(P-sample)으로 선정하였다.

3. Q-표본 분류과정(Q-sorting) 및 방법

Q-표본 분류과정(Q-sorting)의 절차는 Q-표본(Q-sample)을 먼저 읽은 후 긍정, 중립, 부정으로 크게 세 무더기로 분류한 다음 긍정진술문(부정진술문)중에서 가장 긍정(부정)하는 것을 차례로 골라 바깥에서부터(+4, -4) 안쪽으로 분류를 진행케 하여 중립부분(0)에서 마무리하게 하였다. Q-표본 분류과정이 끝난 후에는 양극에 위치한 적극찬성과 적극반대에 분류한 진술문 하나 하나에 대한 선택 이유를 면담을 통해 조사하여 응답내용을 여백의 종이에 기록해 두었다.

그밖에도 P-표본에 관련된 인구학적 특성 중 연령, 성별, 교육정도, 현재 직업유무, 자녀로부터 받는 한달 용돈, 경제상태, 배우자 유무, 동거유형, 종교, 현 생활만족도, 성생활 유무, 과거 직업, 자녀 수, 현재의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였다.

4.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P-표본으로 표집된 노인 32명에 대한 자료수집이 완료된 후, 수집된 자료를 컴퓨터에 자료화일(data file)로 입력시킨 후 코딩은 배럴카드에 기록된 진술항목 번호를 확인해 가면서 가장 반대하는 경우에 1점으로 시작하여 중립인 경우 5점, 가장 찬성하는 경우에 9점을 부여하여 점수화하였다.

한편 자료의 분석은 PC의 Quanl program을 이용하여 처리하였으며, Q-요인 분석은 주인자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방법을 이용하였다.

IV. 연구 결과

1. 노인자신들이 인지한 노인의 의미에 관한 주관성 구조

노인들이 인지한 노인의 의미를 eigen값 1.0이상

을 기준으로 요인의 수를 다양하게 입력시켜 산출한 결과 이상적이라고 판단된 요인의 수는 3개 요인으로, 이 3개 요인이 전체 변량의 43.11%를 설명하고 있으며 각 요인별 설명력은 제 1요인이 19.83%, 제 2요인이 13.90%, 제 3요인이 9.37%였다(표 2). 이와 같이 요인의 수를 3개로 하여 분석하였을 때 5개의 유형으로 나누어졌으며(표 3), 제 1유형이 11명, 제 2유형이 7명, 제 3유형이 2명, 제 4유형이 8명, 제 5유형이 4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들 5개 유형간의 상관관계는 제 3유형과 제 4유형, 제 3유형과 제 5유형, 제 4유형과 제 5유형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표 4).

<표 2> 노인 자신이 인지한 노인의 의미 요인별 Eigen Value와 변량

요 인	요 인1	요 인2	요 인3
Eigen Values	6.3467	4.4490	2.9998
Variance	.1983	.1390	.0937
Cumulative	.1983	.3374	.4311

노인의 의미에 대한 각 유형의 결과 해석은 각 유형에 대한 36개의 진술문 중 긍정을 보이는 항목(표준점수+1)과 부정을 보이는 항목(표준점수-1)을

중심으로 해석하였고, 각 유형의 특성을 보다 분명히 밝혀내기 위해 개별 진술 항목에 대한 특정유형의 표준점수와 함께 개별 진술 항목에 대한 다른 유형과의 차이점수가 두드러진 항목들을 중심으로 해석하였다.

일반적으로 인자가중치가 1.00이상인 사람이 대표성을 가지며 그 유형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데(김홍규, 1992), 본 연구도 각 유형의 대표성을 가진 노인을 중심으로 Q-분류과정 당시의 관찰 및 긍정과 부정의 진술문을 선택한 이유를 면담하고 이를 토대로 주관성 유형의 특성을 확인하였다.

1) 제 1유형 : 성숙형

강한 긍정적 동의와 강한 부정적 동의의 진술 항목을 통해 제 1유형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5).

이 유형의 노인은 자손이 잘 되기를 기원하며, 노인이 될수록 건강에 관심을 갖고 건강유지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또한 노망이 날까봐 걱정을 하며, 노인이 되면 죽은 후에 편안한 또 다른 세상이 있다고 믿게 되어 신에게 더 매달리게 된다는 진술문에 강한 긍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한편 노인

<표 3> 노인 P-표본의 유형별 인자 가중치(Factor weight)

	TYPE 1 (N=11)	TYPE 2 (N=7)	TYPE 3 (N=2)	TYPE 4 (N=8)	TYPE 5 (N=4)
2 67세 여	.9282	1 68세 여 .3931	10 70세 여 1.9491	12 76세 여 1.2181	4 67세 여 .1156
3 62세 여	.2472	9 74세 남 .6178	30 72세 여 .2844	20 72세 남 .6230	11 71세 여 2.2439
5 72세 여	.8948	13 69세 남 .5976		22 77세 남 .2678	15 69세 여 .0755
6 65세 여	1.1035	16 70세 여 .2644		23 72세 남 .8963	28 77세 남 .1011
7 68세 여	1.8010	19 77세 남 .3921		26 86세 여 .2691	
8 68세 여	1.2050	24 67세 남 1.0784		27 69세 남 .4491	
14 68세 여	.6373	25 70세 여 .2287		29 76세 남 .3516	
17 78세 여	.8675			32 83세 여 .2734	
18 70세 여	.4318				
21 66세 남	.6064				
31 65세 여	.8868				

<표 4> 노인 자신이 인지한 노인의 의미 유형간의 상관관계

	유형 1	유형 2	유형 3	유형 4	유형 5
유형 1	1.000	.393	.258	.048	-.093
유형 2	.393	1.000	-.194	-.127	.374
유형 3	.258	-.194	1.000	.649	.787
유형 4	.048	-.127	.649	1.000	-.513
유형 5	-.093	.374	-.787	-.513	1.000

〈표 5〉 노인 자신이 인지한 노인의 의미 제 1유형이 긍정적 동의와 부정적 동의를 보인 진술문

문항 번호	Q-진술문 내용	표준 점수
36.	노인은 자손이 잘 되기를 기원한다.	2.18
1.	노인이 될수록 건강에 관심을 갖고 건강유지를 철저히 해야 한다.	1.87
6.	노인이 되면 노망이 날까 봐 걱정된다.	1.40
18.	노인이 되면 죽은 후에 편안한 또 다른 세상이 있다고 믿게 된다.	1.19
32.	노인이 되면 신에게 더 매달리게 된다.	1.05
34.	노년은 인생을 완성하는 보람과 발전의 시기이다.	-1.00
7.	노인이 되면 가난해진다.	-1.40
31.	노인이 된다는 것은 인간을 괴롭히는 불행 중 최악의 것이다.	-1.55
8.	노인이 된다는 것은 명예롭지 못한 일이다.	-1.80
5.	노인은 쓸모없는 존재이다.	-2.10

은 결코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노인이 된다는 것이 명예롭지 못한 일이거나 인간을 괴롭히는 불행 중 최악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며 노인이 되면 가난해진다는 견해에 반대하고 있으며 노년을 인생을 완성하는 보람과 발전의 시기라고는 생각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다른 모든 유형에 비해 노인이 되면 죽은 후에 편안한 또 다른 세상이 있다고 믿고 있고, 자손이 잘 되기를 기원하며, 노인이 되면 관대해지고 선행하며, 성격이 따뜻하고 편안해지며, 노인이 될수록 건강에 관심을 갖고 건강유지를 철저히 해야 한다에 높은 점수를 나타내어 노인을 긍정적 의미를 지닌 존재로 받아들이고 있다.

유형 1에 속한 연구 대상자는 전체 대상자 42명 중 11명으로 가장 많은 연구 대상자가 이 유형에 포함되었고, 대상자 중 1명만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유형의 특성을 좀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제 1유형의 대표성을 지닌 노인들(7번, 8번, 6번 대상자)을 중심으로 Q 분류과정 당시 면담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인은 자식의 짐을 덜어주어야 하니까 건강 유지를 철저히 하여 건강을 지켜야 해, 때때로 중풍으로 누워 있으면서 대변이나 받아낼까 봐 걱정이 되지” “오래 살았으니깐 젊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될 말 한마디라도 해 주어야 젊은 사람들에게 쓸모 없는 존재라고 취급받지 않지” “노인이 되는 것은 자연의 흐름이니까 최악도 아니고 명예롭지 못한 것도 아니고 쓸모 없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을 믿고 부활도 믿기 때문에 편안해” “자손이 잘 되어야 지 내가 근심 걱정이 없지 노인이 되어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저 자식이 잘 되는 것뿐야” “자식을 이렇게 키워 놓았는데 노인이 왜 쓸모 없는 존재야 명예로운 멸류관이지” “노인들도 의존적으로 살지 않기 위해서 경제적 자립이 필요해”

그러므로 제 1유형의 구성원들의 특성은 담담한 마음으로 노인이 된 것을 받아들이면서 세상을 순리대로 살다보니 몸은 늙었으나 마음은 청춘이고 나름대로 보람이 있었다고 생각하며 노인은 죽는 일만 남았기 때문에 인생을 완성하는 보람과 발전의 시기는 아니라고 하였다. 노인도 인간이므로 나름대로 삶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고 항변하였다. 장성한 아들이 있어 가난하지 않으며 죽은 후에 편안한 또 다른 세상이 있다고 믿고 있었다. 가장 기쁜 것이 자식 잘 되는 것이고 죽은 후에도 자식들이 잘 되기를 기원하였다. 죽는 것은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래 살아도 건강하여야 하고, 추하게 늙지 않아야 하고, 내 인생을 누가 대신 살아주지 않으므로 자식들의 짐이 되지 않게 건강유지를 잘하면서 젊은이에게 모범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들을 성숙형이라 지칭할 수 있겠다.

2) 제 2유형 : 노인권리형

강한 긍정적 동의와 강한 부정적 동의의 진술항목을 통해 제 2유형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6).

이 유형의 노인은 사회에서 모범이 되어야 하고 노인은 효도와 대우를 받아야하고 노인이 될수록 건강에 관심을 갖고 건강유지를 철저히 해야 하며 노

<표 6> 노인 자신이 인지한 노인의 의미 제 2유형이 긍정적 동의와 부정적 동의를 보인 진술문

문항 번호	Q-진술문 내용	표준 점수
11.	노인은 사회에서 모범이 되어야 한다.	1.75
10.	노인은 효도와 대우를 받아야 한다.	1.72
1.	노인이 될수록 건강에 관심을 갖고 건강유지를 철저히 해야 한다.	1.61
25.	노인이 되면 힘이 없어지고 성욕도 없어진다.	1.33
12.	노인은 보호받아야 한다.	1.13
4.	노인이 될수록 경제적 자립이 필요하다.	1.09
21.	노인이 되면 이기적이고 어린아이와 같아진다.	1.04
29.	노인이 되면 더 지혜로워진다.	-1.05
32.	노인이 되면 신에게 더 매달리게 된다.	-1.06
27.	노인이 되면 관대해지고 선해진다.	-1.11
31.	노인이 된다는 것은 인간을 괴롭히는 불행 중 최악의 것이다.	-1.17
7.	노인이 되면 가난해진다.	-1.31
17.	노인이 되면 자유롭고 즐거워져서, 여유가 생긴다.	-1.41
19.	노인으로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다.	-2.01
5.	노인은 쓸모없는 존재이다.	-2.09

인이 되면 힘이 없어지고 성욕도 없어지고, 이기적이고 어린아이와 같아지고 보호받아야 하며 노인이 될수록 경제적 자립이 필요하다는 항목에 강하게 긍정적으로 동의하였다. 한편 노인은 쓸모 없는 존재로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다거나 노인이 되면 가난해지고 인간을 괴롭히는 불행 중 최악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며 노인이 되면 관대해지거나 선해지거나 더 지혜로워지지 않으며 더 신에게 매달린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특히 제 2유형은 다른 모든 유형들에 비해 두드러진 것은 노인은 사회에서 모범이 되어 효도와 대우를 받아야 하고 노인이 되면 힘이 없어지고 성욕도 없어서 지루하고 단순한 생활을 하게되고 노인은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반면에 노인이 될수록 경제적 자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다른 모든 유형들에 비해 낮은 점수는 노인으로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다는 것과 노인이 되면 관대해지고 선해진다 이었다.

유형 2에 속한 연구대상자는 7명으로 남자노인 4명, 여자노인 3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특성을 좀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대표성을 지닌 노인(24번 대상자)을 Q분류 과정 당시 면담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이가 들면 큰 어른이 되는 거니깐 효도와 대우를 받아야 하고 다른 젊은 사람들보다 행실을 올바르게 하여 사회에서 모범이 되어야 해"

"젊었을 때 열심히 살았으면 노인이 된다고 가난해지거나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야" "결혼 안한 아들도 있고 아직 일을 하고 있으니깐 자유롭거나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니지"

제 2유형의 대상자들은 힘이 없어지고 성욕도 없어지고 정신도 흐려지고 자꾸 잊어버려 지혜로워질 수 없고 성격도 변하여 관대해지거나 선해지지 않고 약해지는 것 같고 투정도 늘고 이기적이 되고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 같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어 노화의 생리적 변화를 강하게 경험하면서, 어른이건 젊은 사람들에게 모범적인 행실을 해야하고 효도와 대우를 받아야 하며 경제적 자립이 필요하고 건강유지를 철저히 하고 깨끗하게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자들로 설명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제 2유형을 노인 권리형이라 명명할 수 있겠다.

3) 제 3유형 : 수동적 의존형

강한 긍정적 동의와 강한 부정적 동의의 진술 항목을 통해 제 3유형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7).

이 유형의 노인은 자손이 잘 되기를 기원하고 죽은 후의 자식문제와 노망이 날까봐 걱정이고 노인은 쓸모 없는 존재로 노인으로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고 노인이 되면 자식에게 의지하게 되고, 신에게 더 매달리게 되고 노인은 죽음에 대한

<표 7> 노인 자신이 인지한 노인의 의미 제 3유형이 긍정적 동의와 부정적 동의를 보인 진술문

문항 번호	Q-진술문 내용	표준 점수
36.	노인은 자손이 잘 되기를 기원한다.	1.84
19.	노인으로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다.	1.78
5.	노인은 쓸모없는 존재이다.	1.65
1.	노인이 될수록 건강에 관심을 갖고 건강유지를 철저히 해야 한다.	1.48
16.	노인이 되면 자식에게 의지하게 된다.	1.42
32.	노인이 되면 신에게 더 매달리게 된다.	1.36
6.	노인이 되면 노망이 날까봐 걱정된다.	1.07
3.	내가 죽은 후의 자식문제가 걱정이다.	1.01
4.	노인이 될수록 경제적 자립이 필요하다.	-1.12
24.	노인이 되면 모든 욕심에서 벗어나 세상일에 초연해진다.	-1.18
17.	노인이 되면 자유롭고 흥분해져서, 여유가 생긴다.	-1.48
28.	노인이 되면 외모가 추해지기 때문에 늙고 싶지 않다.	-1.59
23.	노인은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낀다.	-1.65
26.	노인은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고통과 두려움을 느낀다.	-1.65

공포 때문에 고통과 두려움을 느끼지 않으며 외로움과 소외감도 느끼지 않는다. 한편 노인이 되면 자유롭고 흥분해져서 여유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모든 욕심에서 벗어나 세상일에 초연해 지지도 않고 경제적 자립도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특히 다른 모든 유형에 비해 노인으로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며, 신에게 더 매달리게 되고 자식에게 의지하게 되는 것이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었고 노인이 될수록 경제적 자립이 필요하고 노인이 되면 지나간 인생이 후회스러워지고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끼고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고통과 두려움을 느끼고, 노인이 되면 외모가 추해지기 때문에 늙고 싶지 않고 노인이 되면 모든 욕심에서 벗어나 세상일에 초연해진다는 것에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유형 3에 속한 연구 대상자는 2명으로 구성된 모두가 여자노인이다. 그 특성을 좀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제 3유형의 대표성을 지닌 노인(10명 대상자)을 중심으로 Q 분류과정 당시 면담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외모가 추해지기 때문에 늙고 싶지 않거나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끼지 않아. 죽음의 걱정같은 것도 없어 그냥 사는 거지 뭐” “세상일에 어떻게 초연할 수 있나. 노인이 된다고 자유롭지 않아, 여유가 생기지 않고” “살만큼 살았으니깐 자는 것처럼 죽어야지”

제 3형의 노인의 의미에 대한 견해는 노화를 담담

하게 받아들이고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갖지 않는다고는 하나 자식이나 신에게 많이 의지하고 있으며 죽은 후에도 자식 걱정을 많이 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자식에게 부담을 적게 주기 위해 노인이 될수록 건강유지도 철저히 해야한다고 생각하며 노망이 날까봐 걱정하고 있다. 노인은 할 일을 다 했으니 죽을 나이라고 의식하고 있으며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으며 지금의 바램은 고통없이 죽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경제적 자립의 필요도 강하게 부정하며 노인의 삶에는 의미부여를 별로 하지 않고 자식이나 신에게 의지하면서 체념하고 살아가고 있는 노인들이다.

즉 자신의 노인으로서의 삶에 대해 무감각하고 체념한 삶을 사는 자로서 다만 자식 걱정과 함께 자식이나 신에게 의존적 삶을 사는 것이 노인의 의미라고 생각하고 있는 제 3유형을 수동적 의존형이라 명명할 수 있겠다.

4) 제 4유형 : 절망형

강한 긍정적 동의와 강한 부정적 동의의 진술 항목을 통해 제 4유형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8).

이 유형의 노인은 자손이 잘되기를 기원하고, 노인은 쓸모없는 존재이며, 노인이 되면 이기적이고 어린아이와 같아지고, 가난해지고, 노망이 날까봐 걱정이고, 지나간 인생이 후회스러워지고 노인으로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표 8> 노인 자신이 인지한 노인의 의미 제 4유형이 긍정적 동의와 부정적 동의를 보인 진술문

문항 번호	Q-진술문 내용	표준 점수
36.	노인은 자손이 잘 되기를 기원한다.	1.86
5.	노인은 쓸모없는 존재이다.	1.79
21.	노인이 되면 이기적이고 어린아이와 같아진다.	1.68
6.	노인이 되면 노망이 날까 봐 걱정된다.	1.65
7.	노인이 되면 가난해진다.	1.60
19.	노인으로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다.	1.37
35.	노인이 되면 지나간 인생이 후회스러워진다.	1.02
11.	노인은 사회에서 모범이 되어야 한다.	-1.00
14.	노인은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한다.	-1.07
13.	노인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사회에 돌려주어야 한다.	-1.11
33.	노인이 되면 불안감이 생긴다.	-1.24
17.	노인이 되면 자유롭고 홀가분해져서, 여유가 생긴다.	-1.55
29.	노인이 되면 더 지혜로워진다.	-1.65

한편, 노인이 되면 더 지혜로워지지 않고, 불안감이 생기지 않고, 자유롭고 홀가분해져서 여유가 생기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며, 사회에서 모범이 되어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하고,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사회에 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른 유형에 비해 두드러진 것은 노인은 쓸모없는 존재이고, 노인이 되면 가난해지고, 노망이 날까봐 걱정이다에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노인이 되면 더 지혜로워지고 불안감이 생기고 자유롭고 홀가분해져서 여유가 생긴다와 노인은 사회에서 모범이 되어야 하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하고 노인은 효도와 대우를 받아야하고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사회에 돌려주어야 한다에는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유형 4에 속한 연구대상자는 8명으로 남자노인 4명, 여자노인 4명이었으며 그 특성을 좀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제 4유형의 대표성을 지닌 노인(12번 대상자)을 중심으로 Q 분류과정 당시 면담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인은 밥만 축내는 쓸모없는 존재야, 힘이 없으니 죽을 때가 되었는데 빨리 죽어야지” “아무 것도 가진 것도 할 것도 없어 사회에 돌려 줄 것이 아무 것도 없어” “종교는 있지. 또 다른 세상이 있으나 죽으면 끝이지.”

제 4유형에 구성원은 대부분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을 호소하며 늙음이 인생의 끝으로 죽은 일만 남았다고 생각하며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노인들로 삶에 희망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노인은 쓸모없는 존재로 지혜롭지 못

하며 자유롭거나 여유롭지 못하여 이기적이고 어린 아이와 같고 가난하다고 생각하였다. 노인의 사회적 인 측면도 부정적으로 인지하고 있어 사회에서 모범이 되어야 하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하고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사회에 돌려주어야 하는 것을 강하게 부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제 4유형의 노인의 의미는 노인으로서의 삶이 끝이라는 생각으로 희망을 전혀 갖고 있지 않은 절망형이라 명명할 수 있겠다.

5) 제 5 유형 : 현실애착형

강한 긍정적 동의와 강한 부정적 동의의 진술 항목을 통해 제 5유형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9).

노인이 되면 이기적이고 어린아이와 같아지기도 하고, 더 지혜로워지며, 지나간 인생이 후회스러워지며 불안감이 생기고, 모든 욕심에서 벗어나 세상일에 초연해지기도 하고 노인은 사회에서 모범이 되어야 하고 효도와 대우를 받아야 한다에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한편 노인은 자손이 잘 되기를 기원하지 않고, 쓸모없는 존재는 아니며, 신에게도 매달리지 않고, 희망보다는 추억으로 살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노인으로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다에는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다른 유형에 비해 두드러진 것은 노인이 되면 더 지혜로워지고, 불안감이 생기고, 이기적이고 어린 아이와 같아지기도 하고 지나간 인생이 후회스럽기도하고 자유롭고 홀가분해져서 여유가 생기고 모든 욕심

〈표 9〉 노인 자신이 인지한 노인의 의미 제 5유형이 긍정적 동의와 부정적 동의를 보인 진술문

문항 번호	Q-진술문 내용	표준 점수
21.	노인이 되면 이기적이고 어린아이와 같아진다.	1.86
35.	노인이 되면 지나간 인생이 후회스러워진다.	1.70
10.	노인은 효도와 대우를 받아야 한다.	1.70
11.	노인은 사회에서 모범이 되어야 한다.	1.27
33.	노인이 되면 불안감이 생긴다.	1.24
24.	노인이 되면 모든 욕심에서 벗어나 세상일에 초연해진다.	1.16
4.	노인이 될수록 경제적 자립이 필요하다.	1.02
26.	노인은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고통과 두려움을 느낀다.	.99
3.	내가 죽은 후의 자식문제가 걱정이다.	- .99
36.	노인은 자손이 잘 되기를 기원한다.	-1.17
18.	노인이 되면 죽은 후에 편안한 또 다른 세상이 있다고 믿게 된다.	-1.30
32.	노인이 되면 신에게 더 매달리게 된다.	-1.39
5.	노인은 쓸모없는 존재이다.	-1.61
22.	노인이 되면 희망보다는 추억의 힘으로 살게 된다.	-1.74
19.	노인으로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다.	-1.82

에서 벗어나 세상일에 초연해지고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고통과 두려움을 느끼고, 외로움과 소외감도 느끼고, 노인이 되면 외모가 추해지기 때문에 늙고 싶지 않다는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노인은 자손이 잘 되기를 기원하고, 노인이 될수록 건강에 관심을 갖고 건강유지를 철저히 해야하고, 노인이 되면 희망보다는 추억으로 살게 되고, 노인이 되면 신에게 더 매달리게 되고, 죽은 후에 편안한 또 다른 세상이 있다고 믿게 되고, 내가 죽은 후에 자식이 걱정이고, 노망이 날까봐 걱정이고, 노인이 되면 자식에게 의지하게 된다는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유형 5에 속한 연구대상자는 4명으로 남자노인 1명, 여자노인 3명으로 구성되었다. 그 특성을 좀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제 5유형의 대표성을 지닌 노인(11번 대상자)을 중심으로 Q 분류과정 당시 면담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나간 인생이 힘들었고 너무 안 좋은 일이 많아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 후회스럽고 억울하기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하고 살고 싶어 지금이라도.” “늙으니 욕심이 더 나고 과거에 못해 봤던 것 다해 보고 죽고 싶고,” “여러 일을 겪으며 살았으니깐 노인은 지혜로워지지.” “후회스런 지난 인생을 생각하기도 싫어. 어려운 역경을 이기며 잘 살았는데 내가 왜 쓸모없는 존재야?” “인간은 다 죽으나 사는데까진 오래 건강하게 살아야지.”

제 5유형의 노인의 의미는 지나간 인생이 후회스

러워 삶에 대한 애착을 가지며 불안감도 생기고 외로움과 소외감도 느끼고 노인이 되면 외모가 추해지기 때문에 늙고 싶지 않다는 부정적인 심리적 측면이 확인됨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욕심에서 벗어나 초연해져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사회적으로 노인으로서의 도리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있는 유형으로 현실에착형이라 명명할 수 있겠다.

V. 논 의

노년기는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능력이 쇠퇴하는 시기이다. 노년기에 이르면 감각·지각능력의 쇠퇴와 사고능력이 현저히 저하된다. 또한 신체적인 변화는 다섯가지 특징-smaller, slower, weaker, lesser, fewer-으로 요약된다. 더욱이 은퇴와 더불어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되면서, 노년기에는 자아정체감(ego identity)에 변화가 생기게 된다. 이러한 노인의 특성은 고통자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편견을 교착시킬 수 있다(이선자, 1989).

인생주기의 각 부분은 매 단계마다의 특징적인 발달과업이 있고, 노인이 비록 직접적으로 생산에 참가하지 않는다고 할 지라도 반드시 무능하고 쓸모없는 존재인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힘과 능력은 나이가 들면서 감소하지만 새로운 가능성을 선택 할 수 있으며 자신을 확장시키고자하는 발달의

열망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Jonas, 1992). 개인과 사회의 관점에 따라 노인의 의미는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대상자에 따라서 다르게 인식되고 해석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주관성을 고려한 연구방법인 Q 방법론을 통해 노인자신의 노인에 대한 의미의 유형과 그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노인의 의미에 대한 노인자신의 주관성은 다섯 가지의 유형이 발견되었으며 이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노인자신의 노인에 대한 의미는 세상을 순리대로 살았다고 생각하며 나름대로 보람이 있었다고 인생을 수용하고 노인임을 담담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편안한 사후세계를 믿고 자식의 짐이 되지 않게 건강유지를 잘 하면서 젊은이에게 모범이 되는 삶을 강조하는 '성숙형'과 노화의 부정적 변화에 대한 근심을 많이 갖고 있으나 불안에 대해 철저하게 방어하고 있으며 노인은 큰 어른으로서 충동을 통제하고 젊은이들에게 모범적이어야 하고 동시에 효도와 대우를 받아야 함을 강조하는 '노인권리형'과 인생을 수동적으로 살아왔음을 잊을 수 있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삶에 대해 의미를 갖지 않으며 자식과 신에게 의존적 삶을 사는 '수동적 의존형'과 지나온 삶에 대하여 많은 후회의 감정이 있고 자신을 무가치하고 열등하다고 생각하며, 삶보다 죽음을 갈망하며 노인의 삶은 희망이 없는 끝이라고 생각하는 '절망형'과 젊은 시절의 인생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늙어 버린 것에 비통함을 보이며 자신의 늙음에 타협하지 않으려고 하고 노인으로서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있으며 대우를 받아야 함을 강조하는 '현실에착형' 등의 5가지 유형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 5가지 유형은 전체변량의 43.11%를 설명하고 있었으며, 대상자 총 32명중 성숙형에 11명, 노인권리형에 7명, 수동적 의존형에 2명, 절망형에 8명, 현실에착형에 4명으로 나타났으며 인자가중치가 1.0 이상인 사람이 성숙형이 3명, 나머지형이 각각 1명이 속해 있어 성숙형이 주 인자임을 알 수 있다.

성숙형은 Erikson(1963)이 노년기에 자아통합감을 이룬 노인은 자기의 지나간 일생에 대해 만족하며 자신의 인생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현재 생활

에 만족하며 자신이 이룩한 일과 자신의 삶에 대해 감사하는 자세를 가지며, 자신의 존재가 후손이나 자신이 이룩해 놓은 창조적 업적을 통해서 계속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으며 행복하고 심리적인 안녕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것과 유사하다.

노인권리형은 인격이 쌓여 남에게 모범이 되고 오랜 경륜과 사리분별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어른이라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존칭어를 사용하기를 좋아하는 유교적 윤리관과 혈연공동체적인 생활 양식에 의하여 노인은 가족생활이나 지역사회에서 가부장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어서 노후생활에 대한 보호기능은 그 테두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노인들임을 알 수 있다. 이 유형은 현대사회에 이르러 가족구성원의 경제적, 사회적 생활방식이 변하면서 종래의 가족제도와 혈연적 근린연대에 의한 노인부양기능이 쇠퇴하여 가고 있으므로 노인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노화에 대한 근심을 많이 갖고 있으나 이 불안에 대해 어른이라는 권위에 의해 철저하게 방어하고 충동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유형으로 Neugartion(1968)이 제시한 성격적응유형 4가지-통합형(재구성자형, 초점형, 유리형), 무장방어형(지속형, 위축형), 수동적 의존형(구원요청형, 무감각형), 비통합형(조직와해형)-의 한 유형인 무장방어형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수동적 의존형은 타인에 의존하여 생활함에 안이감을 가지고 욕망도 그다지 없고 과거에 살며 현실을 경시하고 물질적, 정신적으로 매사에 있어 수동적이고 책임지는 것을 싫어하는 노인들이다(임춘식, 1992). 이 유형은 Neugartion(1968)의 무장방어형 중의 위축형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절망형은 Erikson(1963)이 자아통합감을 이루지 못한 노인은 삶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며, 희망했던 것에 대한 끊임없는 미련이 남아 있으며, 때로는 자신의 부족함과 결함을 외부 세계로 투사하게 된다는 것과 유사하다. 그들은 궁극적으로 죽음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심한 경우 노인성 정신병, 우울증, 히포콘드리아증에 걸리게 되며 매우 심술맞고

과대망상의 증상을 초래한다고 한다.

현실애착형은 Reichard 등(1962)의 성격적응특성 분류-성숙형, 방어형, 은둔형, 분노형, 자학형-에서의 분노형과 유사하다. 이 유형의 노인들은 젊은 시절에 인생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늙어버린 것에 매우 비통해하고 그 실패의 원인을 자신보다는 불행한 시대의 사회, 부모와 형제 등 다른 데로 돌림으로써 남을 질책하고 자신의 늙음에 대하여 타협하지 않으려는 노인들이다.

이를 통하여 노인들은 노인에 대한 의미를 성숙형, 노인권리 주장형, 수동적 의존형, 절망형, 현실애착형 등으로 인지하였는데 이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포함한다는 보고들(이선자, 1989, 윤성혜, 1990)을 뒷받침하고 있다. 한편 노인들이 다양한 삶의 의미를 갖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동일한 노인일지라도 다양한 간호 접근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노년기는 신체, 심리정신, 사회적으로 다양한 반응이 나타나는 삶의 과정이고 여러 가지 측면들을 다양하게 포함하고 있으므로 간호사들은 노인들이 긍정적으로 노인에 대한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신체적 심리적으로 지지적인 돌봄을 제공하고 노인들이 긍정적인 노인의 의미를 발견하고 조기에 인지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노인의 삶을 전망할 때 무엇보다도 삶의 의미를 갖는 것이 긴요하며, 삶의 의미에서 행동이 나오고 그 행동이 그 삶의 형태를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노인 스스로도 문화 전승과 경험전달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하고 다음세대의 창조를 위한 전승자로서의 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VI. 결론 및 제언

노인의 삶을 전망할 때 무엇보다도 삶의 의미를 긍정적으로 갖는 것이 긴요하므로 노인들이 노년의 의미를 발견함으로써 현 생활에 적응하여 만족스럽게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간호사의 이해와 지지가 뒷받침되어야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인들 자신이 인지하고 있는 노인에 대한 주관적 의미의 유형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노인의 의미를 탐색하고 긍정적인 노인의 의미형성을 위한 제언에 도움이 되고 더

나아가 노인 간호중재시에 간호사정 단계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노인자신이 노인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와 유형별 특성을 알기 위해서 Q-방법론을 적용하였다. 노인들과 성인, 청소년들을 심층 면담하고 문헌을 통해 183개의 Q-모집단을 구성하였으며 Q-방법론을 이해하는 간호학 교수와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36개의 Q 진술문을 만들었다. P 표본은 노인 3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PC의 Quanl program을 이용하여 처리하였으며, Q-요인 분석은 주인자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방법을 이용하였다.

연구 결과에서는 노인 자신이 인지한 노인에 대한 의미는 5가지 유형-성숙형, 노인권리형, 수동적 의존형, 절망형, 현실애착형-이 발견되었다. 먼저 노인에 대한 의미는 세상을 순리대로 살았다고 생각하며 나름대로 보람이 있었다고 인생을 수용하고 노인임을 담담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편안한 사후세계를 믿고 자식의 짐이 되지 않게 건강유지를 잘 하면서 젊은이에게 모범이 되는 삶을 강조하는 '성숙형'과 노화의 부정적 변화에 대한 근심을 많이 갖고 있으나 불안에 대해 철저히 방어하고 있으며 노인은 큰 어른으로서 충동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젊은이들에게 모범적이어야 하고 동시에 효도와 대우를 받아야 함을 강조하는 '노인권리형'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삶에 대해 의미를 갖지 않으며 자식과 신에게 의존적 삶을 사는 '수동적 의존형'과 지나온 삶에 대하여 많은 후회의 감정이 있고 자신을 무가치하고 열등하다고 생각하며, 삶보다 죽음을 갈망하며 노인의 삶은 희망이 없는 끝이라고 생각하는 '절망형'과 젊은 시절의 인생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늙어버린 것에 비통함을 보이며 자신의 늙음에 타협하지 않으려고 하고 노인으로서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있으며 대우를 받아야 함을 강조하는 '현실애착형'등의 5가지 유형이었다. 이 5가지 유형은 전체변량의 43.11%를 설명하고 있었으며, 대상자 총 32명중 성숙형에 11명, 노인권리형에 7명, 수동적 의존형에 2명, 절망형에 8명, 현실애착형에 4명으로 나타났으며 인자가중치가 1.0이상인 사람이 성숙형이 3명, 나머지 형이 각각 1명이 속해 있어 성숙형이 주 인

자임을 알 수 있다.

제언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노인간호를 위한 간호학적
인 활용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 1) 노인에 대한 의미의 유형을 사정하여 간호중재를
위한 사정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 2) 인간의 발달단계별로 노인의 의미에 대한 인지
유형을 파악하여 노인간호를 위한 가족구성원의
역할분담 모형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고영희 (1992). 심리학. 양서원.

김경자 (1993). 종교참여에 따른 노인의 죽음 불안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경희 (1990). 노인복지연구. 홍익제.

김미옥 (1986). 노인의 소외감과 신체적 노화에 관
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수연 (1986). 도시노인의 생활만족도와 관련변인
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수연 (1987). 노인 종교참여도와 관련변인에 관
한 연구. 한국노년학회지, 제 9권, 55-67.

김정석 (1999). 노인복지정책. 노인생활, 3,4월호.

김태현 (1994). 노년학. 교문사.

김혜련 (1990). 노인이 지각한 죽음에 대한 불안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홍규 (1992). 주관성 연구를 위한 Q방법론의 이
해. 서울대학교 간호학 논문집, 6(1), July,
1-11.

박재호 (1985). 노인에 대한 청소년의 사회적 지각
과 태도.- 노화, 노인문제 비교문화학적 고찰.
영남대학교출판부, 90-105.

변정화 (1998). 죽은 노인의 사회, 그 징후들. 한국
노년문학연구II, 국학자료원, 9-65.

서병숙 (1994). 노인연구. 교문사, 118.

시몬느 드 보바르. 노년. 홍상희, 박혜영 역
(1994). 책세상.

윤성혜 (1990). 청년, 중년, 노년층의 노인에 대한
인식 비교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
사학위논문.

윤 진 (1985). 성인, 노인심리학. 중앙적성출판사.

이선자 (1989). 연령단계별로 본 노인에 대한 태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영란, 김신미, 박혜옥, 박효미, 조계화, 노유자
(1998). 국내 노인간호연구 분석과 발전방향.
대한간호학회지, 제28권, 제3호, 676-694.

임춘식 (1992). 현대사회와 노인문제. 유평출판사,
134-182.

전용식 (1983). 한국노인복지의 확충방안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순남 (1984). 현대사회의 노인복지. 홍익제.

한국궤립조사연구소 (1984). 한국노인의 생활과 의
식구조.

C. J. Farren, Eleanora Keane-Hagerty,
Sandra Salloway, Sylvia Kupferer,
Carolyn S. Wilken (1991). Finding
Meaning : An Paradigm for Alzheimer's
Disease Family Caregivers. The
Gerontologist, Vol. 31, No. 4, 483.

Erikson, E. (1963). Childhood and Society
(2nd Ed.). New York: Notron.

Fabry, J. B. 의미치료, 고병학 역 (1985). 서울
: 하나의학사.

Frankl, V. E. 죽음의 수용소에서, 김충선 역
(1997). 서울: 청아출판사.

Harald, R. Johnson (1985). "노화 및 노인에 대
한 사회적 지각- 미국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관념 -", 노화, 노인문제 비교문화론적 고찰. 영
남대학교출판부, 84-89.

Jonas, C. M. (1992). The meaning of Being
an Elder in Nepal. NSQ, 5(4), 171-175.

Newgarton, Bernice (1968). Middle Age and
Aging. University of Chicago Press.

Reker, G. T., Peacock, E. I., & Wong P. I.
P. (1987). Meaning and purpose in life
and well-being : A lifespan perspective.
Jorunal of Gerontology, 42, 44-49.

- Reichard, et. al. (1962). Aging and Personality. New York, Wiley Publishing.
- Zika, S., & Chamberlain, K. (1992). On the relation between meaning in lif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83, 135-145.

Abstract

Key concept : Meaning of aging

A Subjectivity Study on the Meaning of Aging for Elders

Lee, Keum Jae* · Park, In Sook**
Kim, Boon Han***

This study is designed to investigate what elders think about the meaning of aging. We have used Q-methods to identify meaning of aging from elders, and developed self-referenced surveys to analyze characteristics

In this study, we used a non-structured method to select Q sampling. From 183 Q populations, we selected 36 Q sampling. A total of 32 persons sixty-years or older were randomly selected for P samples. When the Q-sorting was complete, we interviewed the participants at both end of the extremes (agree or disagree), and documented their responses. We used PC QUANL to process the data and used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for Q factor analysis.

There were five subjective types for the

meaning of aging by elders. Of the 32 P-samples of elders, 11 were identified as Type 1, 7 as Type 2, 2 as Type 3, 8 as Type 4, and 4 as Type 5.

Type 1 : "Matured elders" Elders wished the well being of their children, thought older persons should maintain good health, worried about becoming senile, and dependent God believing in life after death.

Type 2 : "Assertive-Rights" Elders categorized as Assertive-Rights insisted on their rights to life as a person. Type 2 elders characterized themselves as people who should keep themselves healthy, become weak and lack sexual desires, act selfish like a child, need to be protected, and be financially independent.

Type 3 : "Passive-Dependents" Elders characterize themselves as those who pray for their children's well being, worry about the children even after their death, and becoming senile.

Type 4 : "Hopeless" The "Hopeless" type of elders characterized aging as a time to pray for their children, insignificant beings, thoughts were selfish and child-like, poor, worried about going senile, regret their life overall, and preferred to die than to live as an old person.

Type 5 : "Attached-Present" The "Attached-Present" type of elders thought elderly characterized themselves as acting selfish and child-like, wiser, anxious, regret their life, stand aloof of greed and worldly things, being a model for the society, and deserving to be treated with filial respect.

Thus far, Korean elders seemed to have a positive and negative meaning of aging due to the current changes in the society, value system, and family structures. The above five subjective meanings of aging confirm that we need to approach and nurse the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Kyungwon College

**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Hanyang University

elderly differently. Years of aging are a part of and a natural process of life with various physical, psychological, and sociological changes. Nurses need to assist elderly to find the positive meaning of their life by providing appropriate physical, psychological, and social support at an earlier stage in nursing.

Based on this study, we could derive the following two implication from the

perspectives of science of nursing to care for elders. 1) Based on the studies investigating the type of meaning of aging, we could develop tools to assist in nursing intervention programs for elderly. 2) Based on research on the meaning of aging for different developmental stages of life, we could develop a model for roles for different family members in nursing and caring for the elders.